

# 다니엘서 - 제34번

다니엘의 계시: 지구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관통하는 예언적 여정

Jeff Pippenger

2023-12-29

다니엘서의 처음 여섯 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사를 나타낸다. 미국(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798년에 교황권(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언적 치명상을 받아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서의 통치를 마쳤을 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등장했다.

땅의 짐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경고해 온 역사이다. 땅의 짐승의 역사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조사심판이 시작되었고, 땅의 짐승의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집행심판이 시작된다. 처음에 하나님의 조사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로 대표되었으며, 그것은 1798년에 '끝의 때'에 도래했다. 끝에서는 하나님의 집행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로 대표되며, 그것은 1989년에 '끝의 때'에 도래했다.

모든 '마지막 때'마다 다니엘서의 일부가 봉인 해제된다. 땅의 짐승의 초기 역사였던 1798년에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의 봉인이 풀렸다. 그 장들은 올라이 강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땅의 짐승의 말기 역사였던 1989년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봉인이 풀렸다. 그 장들은 히데겔 강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마다 그때 살아 있는 세대 위에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임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되었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요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은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열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결합해 만들어졌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며 그것을 담고 있다. 모든 예언적 진리는 그 단어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다니엘서 12장의 세 단계 시험 과정도 그러하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상징되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낸다.

1798년 '끝의 때'에 조사 심판의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가 전해졌던 당시의 땅의 짐승의 초기 역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로 대표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는 진리인 세 단계 각각이 모두 담겨 있으며, 그 세 단계는 1798년에 첫째 천사가 임했을 때 그 세대가 직면했던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대표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6, 7.

1989년 종말의 때에 집행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는 경고가 이르렀을 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마지막 역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표상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진리인 세 단계를 나타내며, 이 세 천사는 1989년에 셋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 살아 있던 세대가 직면한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대표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며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하였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쉬이 없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14:6-12.

다니엘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조는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세 단계이며, 그에 상응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시험 과정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미국)의 역사선 위에서, 또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공화주의와 개신교)의 역사선 위에서 전개된다. 1798년에 시작되어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역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 동일한 역사 기간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1798년부터 가까운 장래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묘사하는 구조도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예언적 역사들을 식별하며, 그리하여 둘째 증인의 기별을 완전하게 하는 첫째 증인이 된다. 두 책의 완전함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예언적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의 역사는 구약에 담긴 증거 없이는 온전히 입증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신약만큼이나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하나는 오실 구주를 증언하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방식대로 이미 오신 구주를 증언한다. 구속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과거의 예언에서 비추는 영화로운 빛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의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낸다. 예수의 기적들은 그의 신성을 증명하지만, 그가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신약의 역사와 비교한 구약의 예언들 속에서 발견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살펴보라. 너희가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바로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때에는 구약 외에 다른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구주께서 하신 이 명령의 뜻은 분명하다." 예언의 영, 3권, 211쪽.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요약하며, 세 단계를 증언하고, 그 세 단계가 곧 '진리'이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를 나타내며, 그 단어 자체도 같은 것을 나타내는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예수는 어떤 것의 시작과 함께 그 끝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진리인데, 그것들이 다른 것들 가운데서도 세 단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모두 '생명'이다. '생명'과 '부활'이 모두 '생명'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단어의 가운데 글자는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고, 열셋은 반역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과 그의 반역에 동참한 아담의 자손들의 반역에 의해 초래되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며, 그때 열려 드러나는 진리의 주요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진리", 곧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자신의 말씀 안에 존재하도록 그가 작정하신 진리들 위에 알파와 오메가로서 자신의 서명을 새기신다는 사실이다.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의 역사는 구약에 담긴 증거 없이는 온전히 입증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만큼이나 구약에서도 분명히 계시된다"라고 썼을 때, 그녀는 볼 줄 아는 이들을 위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메시지(이 또한 "생애, 죽음, 부활"이라는 동일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가 "...에 담긴 증거 없이는 온전히 입증될 수 없다"는 진술이 다니엘서에 담긴 증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다니엘서가 "장차 올" 바벨론을 증언하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예언한 방식대로 "이미 온" 바벨론을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는데, 이는 다니엘서에서 나온 "영광의 빛"이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분명함과 아름다움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의 기적들'이 '그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이지만,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요한계시록의 역사와 '비교할 때' 그가 세상의 구속주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발견된다고도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면, 오늘날의 영적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 증언하며,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그 계시 안에서 영생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예언적 진리를 제시한다. 이 책은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세 단계에 기초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봉인이 풀리고 드러나는 때의 세대에게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 된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맨 첫머리와 첫 장에서부터 뚜렷이 강조된다. 또한 이 글들은 다니엘서 1장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메시지와 동일한 예언적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와 다니엘 1장은 모두 알파와 오메가의 특징인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밝혀준다. 그 장은 문자적 바벨론이 문자적 유다를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 책은 다니엘 11장 마지막 여섯 절에 나타난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최후의 전투로 이어진다. 그

구절들에서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간의 유예 기간이 끝날 때, 영적 바벨론이 영적 유다에게 정복된다. 그 구절들은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예언적 역사의 끝을 나타낸다. 그 구절들에서는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가 묘사된다.

치명상의 치유를 묘사하는 구절들은 다니엘 11장 40절, 곧 “마지막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절에서 시작된다. 그 절에서 “마지막 때”는 1798년, 곧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은 때를 가리킨다. 이어지는 절들은 교황권이 먼저 그 원수인 남방 왕(소련), 다음으로 그 동맹인 영광스러운 땅(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생자인 애굽(유엔)을 정복함에 따라 그 치명상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들려준다. 45절에서 교황권(북방 왕)은 도와줄 자 없이 그 끝을 맞는다. 이 절들에 나오는 교황권 치명상의 치유 이야기는 1798년 교황권의 몰락으로 시작하여, 교황권의 최종적인 흥기와 몰락으로 끝난다. 단락의 서두와 결말 사이에 놓인 절들은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반역을 밝혀 준다.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글자, 열세째 글자, 마지막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열셋은 반역을 상징하는 수이며, 처음과 마지막 사이의 역사를 상징한다. 다니엘서의 예언 마지막 본문에서는 책의 맨 처음 구절들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전쟁이 다시 나타난다. 그 구절들은 1장을 소개하며, 그 1장에서 우리는 진리인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는 교황권의 첫 번째 몰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몰락으로 끝나는 동일한 세 단계를 발견하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말세의 반역이 자리하고 있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는 진리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 있다. 교황권이 전복해야 했던 첫 번째 지리적 세력(남방 왕)은 용의 권세의 상징이며, 세 지리적 세력 가운데 마지막인 애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치명상이 치유되기 위해 필요한 세 단계의 정복은 무신론의 용의 권세를 상징하는 남방 왕으로부터 시작되며,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 세력 중 마지막은 용과 연관된 무신론을 성경에서 가장 대표하는 상징이다. 사실 그 본문 40절에서 ‘south’로 번역된 단어는 ‘네게브’이며, 때로는 애굽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장애물에는 진리의 표징이 드러난다. 첫 번째 장애물이 곧 마지막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가운데 있는 세력은 영화로운 땅(미국)이다. 미국은 일요일 법령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며, 미국이 시작될 때 그 상징은 열세 개의 식민지였다.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이 다니엘서 전반에 배어 있으며,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언을 제공한다. 다니엘서 12장과,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는 세대에 일어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악인으로 규정된 자들에 속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규정된 무리에 속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봉인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국정의 책임을 맡고 세계적 권세를 행사하던 왕국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절로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영예를 입어, 장차 올 시대들의 신비에 관한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의 이름을 딴 책의

7장부터 12장에 그가 기록한 놀라운 예언들은 예언자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생애의 수고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는 '날들의 끝'—곧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다시 자기의 분깃과 자리에서 서게 되리라는 복된 확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신적 목적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그가 다 이해하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예언적 기록과 관련하여 그는 '이 말을 간수하고 책을 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끝날까지' 봉함되어 있어야 했다. 여호와와 신실한 사자에게 천사는 다시 이렇게 지시했다.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들은 끝날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이라... 너는 끝날까지 네 길로 가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날들의 끝에 네 분깃 가운데 서리라.' 다니엘 12:4, 9, 13.

"이 세상 역사의 마침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와 관련된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이들과 함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이 연결되어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계시를 받은 요한의 기록 중 예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일에는 특별한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하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10절)는 말씀은 말세에 봉인이 풀리게 될 다니엘의 이상들을 가리켜 하신 것이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 대하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요한계시록 1:3)라는 약속이 있다." 선지자와 왕들, 547.

자신의 시대를 향해 미래 시제로 말하며, 화이트 자매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니엘에 기록된 예언들이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가올 시대들의 신비에 관한 많은 계시, 그의 이름을 딴 책의 7장부터 12장에 그가 기록한 놀라운 예언들"은 "말세에 봉인이 풀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면 세 단계의 정결 과정이 시작되며, 그 과정은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니엘서를 주시는 때에 살아 있는 세대를 시험한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화이트 자매는 내려온 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알려 준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천사는 손에 펼친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고, 요한은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린 것이었으므로, 요한이 먹으라는 명령을 받은 그 책은 다니엘서라는 작은 책이었다.

책의 인봉을 떼고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계시를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에 서서,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 세상에 선포될 종말의 때까지 봉인되어 있던 자신의 증언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동안,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인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러하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의 선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봉인이 풀리며, 우리를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로 이끌어 간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말세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명심하겠는가? 다니엘서와 연관하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115.

지금 봉인이 열리고 있는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계시를 거절하는 것은 악인들에 속하는 것이다. 다니엘서의 앞 여섯 장은 재림운동의 예언적 역사,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사야 23장의 상징적 70년, 개신교와 공화주의의 두 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적 역사,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대표하는 예언적 구조를 확립한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장은 앞서 언급한 모든 역사들의 시작과 끝에서 봉인이 열리는 예언적 기별들을 밝혀 준다.

다니엘서 1장은 땅의 짐승의 역사가 시작될 때의 첫째 천사 운동의 역사이다. 다니엘서 1~3장은 땅의 짐승의 역사가 끝날 때의 셋째 천사 운동의 역사이다. 다니엘서 4장은 시작으로서 1장과 대응되어야 하며, 5장과 6장은 끝으로서 1~3장과 대응되어야 한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는 시작의 역사로서 1장과 대응되어야 한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난 지식의 증가는 끝의 역사로서 1~3장과 대응되어야 한다.

조목조목, 이 적용은 땅의 짐승의 초기 역사를 1장, 4장, 7장, 8장 및 9장으로 본다. 또한 이 적용은 땅의 짐승의 종반 역사를 1장부터 3장까지, 5장, 6장 및 10장부터 12장까지로 본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땅의 짐승의 시작이자 끝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땅의 짐승의 시작은 다니엘서 1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장이 1장 위에 겹쳐지기 때문이며(줄 위에 줄), 7장, 8장, 9장도 1장 위에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의 짐승의 역사의 시작은 다니엘서 1장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땅의 짐승의 끝도 그렇다. 땅의 짐승의 역사의 끝은 1장부터 3장으로 나타나고, 5장, 6장, 10장, 11장, 12장은 처음 세 장 위에 겹쳐지도록 되어 있다(한 줄 위에 한 줄씩). 그러므로 땅의 짐승의 역사의 끝은 다니엘서의 처음 세 장으로 나타난다.

제1장은 시작을 나타내고 이어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끝을 나타내며, '하나, 그다음 셋'이라는 구조는 다니엘서의 예언적 구조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예언적 구조와 동일함을 보여 준다. 거기에서도 다니엘서에서처럼 첫째 천사는 별개의 역사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세 천사의 역사의 3분의 1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이 '셋과 하나'의 결합을 드러내고 강조하듯이, 그것은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구조이기도 한데, 그 구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 권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과 다시 1장부터 3장에서 제시된 세 단계의 시험과 정결 과정도 나타낸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또한 처음과 나중이시며, 그런 점에서 첫째 천사 운동의 역사는 세 천사들의 역사 속에서 글자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므로 시작은 항상 끝을 보여 주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다니엘서 1장 위에 다니엘서의 처음 세 장을 포개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되는데, 다니엘의 '작은 책'은 다니엘서 1장에서 온전히 대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의 칙령을 집행할 준비를 하던 관원들이 찾고 있던 자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칙령에 따라 그들 또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혜와 슬기로' 다니엘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왕의 칙령이 이토록 급한가?' 아리옥은 왕이 놀라운 꿈 때문에 크게 당혹해했고, 지금까지 가장 신뢰해 오던 이들에게서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것을 들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감히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하나님께 그 꿈과 그 해석을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그의 동무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그들은 함께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분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고, 그들이 그의 일을 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자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다. 당혹과 위험의 때마다 그들은 늘 인도와 보호를 구하며 그분께로 돌아갔고, 그분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도움이심을 입증하셨다. 이제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땅의 재판장이신 분께 자신들을 복종시키며, 이 특별한 필요의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높여 드렸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높이셨다. 주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환상 가운데서' 왕의 꿈과 그 뜻이 계시되었다.

"다니엘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고 그는 외쳤다. '지혜와 능력은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깨닫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거하나이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는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왕의 일을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선지자들과 왕들, 493, 494.